

## 모든 이와 함께 희망의 순례자가 됩시다

### ■ 머리말

「희망」을 주제로한 2024년 희년이 막을 열었습니다. 이 희년은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증거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혼미스러운 현대세계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교종 프란치스코는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5)라는 바오로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신앙과 희망을 확인함과 동시에,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을 증거하는 순례자가 되어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사목교서에서 시노도스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며, 예수님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5-27)에서 단서로 ‘길’과 ‘여관’에 주목한 선교의 원점을 찾았습니다. 시노도스적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틀어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걷기’ 위해서, 현실에 눈을 두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만남과 대화 안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사목교서에서는, 교종 프란치스코의 희년의 부름을 듣고, 세계와 일본의 ‘길’과 ‘여관’의 현 상황을 고려하며, 우리들은 어디에서, 누구와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서면의 제약으로 한정된 주제만 다루게 되겠지만, 교토교구의 여러분도 「희망의 순례자」가 되기 위한 힌트를 얻고,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순례를 계속 이어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1. 그리스도는 희망의 닻

많은 종교에서도 희망은 믿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곤란한 때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미래를 향한 신뢰를 지탱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희망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에 의해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하느님을 향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향해서, 이 지상에서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하느님 나라의 다시오심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현세의 고난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희망은, 미래를 향한 확신과 현재의 삶을 지탱하는 두 가지 모두를 제공합니다. 2025

년 희년에서 교종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를 ‘영혼의 닻’(히브 6,19 참조)으로 제시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삶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들의 배를 안정시키는 닻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또한 희망은, 신앙과 사랑과 같은 대신덕(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덕) 가운데 하나입니다(1코린 13,13, 1테살 1,3 참조).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 대신덕에 대해서, ‘신앙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희망이 그 관계를 지속시키며, 사랑이 그것을 완성시킨다.’라고 통찰하고 있습니다(『신학대전』 참조). 이 순서로, 신앙에서 희망이 태어나고, 신앙에서 사랑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올해의 희년에는, 희망에서 태어나는 사랑의 행동을 통해, 우리들 주위의 세상에 희망의 빛을 넓혀갑시다.

## 2. 전쟁 후 80년, 핵 없는 세상을 지향하며

올해는 전쟁 후 80년을 맞이하여, 핵무기의 폐지와 핵 없는 세상의 실현을 바라는 특별한 때입니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2019년에 일본을 방문하셨을 때, 나가사키에서는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바라시고, 히로시마에서는 핵무기의 사용과 보유는 윤리에 반한다고 말씀하시며, 핵무기의 소유가 평화를 지키는데 역행한다고 하시며, 군비확장의 경쟁은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일본의 주교단은 핵무기 금지조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사용에 의한 파괴와 고통을 경험한 일본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겸허하게 배우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희년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세계 곳곳의 전쟁과 분쟁을 끝내고,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지향하며, 세계평화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결의를 새롭게 합시다.

## 3. 우크라이나에서 온 피난민의 지원

2022년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의 침공 이후, 일본은 2718명(2023년 12월 시점)의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받아들였고, 2024년 10월 시점에서는 재류하고 있는 수가 1,984명(출입국관리청)입니다. 교토교구 내에서는, 교토부 62명, 나라현 13명, 시가현 20명, 미에현 1명입니다. 정부는 생활지원과 일본어학습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쟁의 장기화로 많은 젊은이들이 귀국 혹은 정착하는 선택에 쫓기며, 진학과 취직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우크라이나 국민이 나라를 재건하

기 위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연대해야만 합니다. 많은 자치단체는 피난민과의 교류를 심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모금활동과 지역사회에 의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우크라이나의 가족과 유학생을 계속해서 서포트합니다.

#### 4. 가자 지구의 주민을 위한 지원

팔레스티나 가자지구에서 시작된 오랜 분쟁이 주변 국가에 확대되는 가운데, 주민의 절반가량이 죽거나 기아를 직면하고 있으며, 긴급한 국제인도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카리타스 재팬, 일본 유니세프협회, 일본적십자사, UNRWA (국제연합 팔레스티나 난민구제사업기관,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등은 의료케어와 안전한 물의 공급, 심리케어, 어린이들의 교보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 양국가의 오랜기간에 걸친 갈등을 고려하면, 화해와 평화적인 공존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화와 협상을 필요로 합니다. 이 희년에 양국가의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길에 희망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5. 노토반도 지진의 피해자들과 함께

2024년 새해에 노토반도 지진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9월에는 호우재해도 덮쳤습니다. 나고야교구 서포트센터는 지진발생 직후에 현지에서 지원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인프라의 복구와 임시주택으로 이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생활재건과 생업지원에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아무도 혼자 힘으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종종 말씀하십니다. 재해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경험하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지진과 기록적인 호우로 인한 피해가 각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괴로워하는 이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희망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이의 아픔을 지고가신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도와 행동으로 증거합니다.

#### 6. 재류카드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일본 가톨릭 주교단은 2023년, 부모가 재류자격이 없어 강제송환의 위기에 처한 외국계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도적 이유로 국가에게 가족의 재류특별허가를 요청하는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재류카드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다닐 권리는 있지만 건강보험증을 가질 수 없거나,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는 등 생활조건에서 제한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2024년 재류특별허가에 관한 대응을 일부 수정하고, 외국계 아이들에게 재류특별허가를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사정으로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얻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 지원하는 일 또한 희년의 목적입니다.

## 7. 누명을 쓴 이들을 위한 지원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누명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형이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상, 죄없는 인간을 처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2018년,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사형에 관한 항목을 개정하며, 사형이 인간의 존엄과 불가침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명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5건의 사형판결이 재심에서 무죄로 밝혀져, 사형수가 석방된 적이 있습니다. 사형수의 재심요청 건수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는 없지만, DNA감정을 통해 18건의 사형판결이 부당한 누명으로 밝혀졌습니다. 관계자들의 잃어버린 시간과 정신적 고통을 완전히 보상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야말로, 누명으로 고통받는 일을 막기 위하여 심문방법의 개선과 자백강요를 막기위한 법률검토, 누명으로 밝혀졌을 때의 재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톨릭의 입장에서 사형폐지와 누명방지의 법개정을 촉구하며, 재심청구자들과 함께 정의와 희망을 추구합니다.

## 8. 사회의 벽 해소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자립하고 충분한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사회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 시행되었던 「장애인차별철폐법」은 신체적, 지적,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하는 차별을 없앨 것을 추진하며,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서로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공존하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배려를 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다양성 & 포용성을 지향하는 ‘D&I’라고 불리며 다양한 배경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하는 생각과 실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별, 나이, 국적, 민족, 종교, 장애의 유무 등 개인의 다양한 속성을 가치있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각각의 다름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별이나 편견, 오해를 줄이고 사회의 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장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의식의 벽을 허물도록 노력합시다.

## 9. 인생을 장식하는 노인과 함께하는 순례

교종 프란치스코는 항상 노인에게 특별한 배려를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오지 못했던 분들과, 지금도 만나뵙지 못한 노인들과 함께 희망의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소중한 것입니다. 노인은 자신의 인생에 보람을 가져주십시오. 수명이나 능력이 쇠약해져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쌓아온 성실한 노력과 무수한 사랑의 봉사입니다. 한편, 노인이 가진 지혜와 경험은 가족과 사회에 있어서 소중한 재산이며, 노인에게 경의를 표하는 문화를 키워나가는 것은 모든 세대에 있어서 소중한 책임입니다. 또한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호와 의료의 분야에서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회공동체의 힘을 살려 이 벤트와 모임을 통해 특히 고독을 느끼고 있는 분들과 하느님의 사랑과 희망을 함께 나눕시다.

## 10. 노인간호 종사자의 이해와 지원

신체기능이나 인지능력이 떨어진 노인을 돌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핵가족화와 맞벌이 세대가 늘어나며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기 어려워지며,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돌봄 난민’이나, 서로를 돌보는 노인, 서로 치매에 걸렸지만 돌보는 노인, 노인학대, 고독사와 같은 상황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간호에 종사하는 사람의 애정과 노력에 가치는 분명히 있지만, 돌봄은 혼자서 짊어져야 할 부담이 아닙니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간호종사자는 하느님의 손과 음성을 느끼게 해주며, 인간의 존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간병인의 정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가족과 지

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원하고, 간호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합시다.

### 11. 등교거부 학생을 위한 지원

교토교구에는 마이즈루 시에 ‘성모의 작은 학교’라는 등교거부 학생들을 지원하는 자유학교가 있는데, 저는 이 학교의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특징은, 등교거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개별지도를 하며, 학생이 희망하는 환경을 제공하며, 사회적인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입니다. 또한 다니던 학교와의 연대를 통해 학습평가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등교거부의 경험을 살려서 성장하는 학생들을 여러명 보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성찰하며, 공감력과 소통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어려움을 넘어서는 힘을 갖춰나아갑니다. 학생의 부모님들도 자녀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를 심화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등교거부를 성장의 기회로 여기고, 아이들을 따뜻하게 지켜보며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주는 사람들을 응원하며, 희망의 빛을 전해줍니다.

### 12. 소년소녀가장의 아이들에게 사랑을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일부 어린이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매일 돌보는데 과중한 부담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는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치 않고, 민폐를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이에게 상담하지 않고, 혼자 어려움을 끌어안으며 소년소녀가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소년소녀가장이 바라고 있는 것은, 고립과 스트레스와 같은 자신의 기분을 말할 수 있는 누군가와, 학교와 사회의 지원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자신의 역할에 보람을 느끼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가족에게도 고난과 시련은 있지만, 주위에서 지원과 사랑으로 소년소녀가장이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13. 가족붕괴의 어린이를 보호합시다.

가족 안에서 대립과 학대, 육아포기가 일어나며, 가족의 기본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가정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소’나 ‘어린이식당’에서는 가정의 고민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NPO에서는 전화와 대면으로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특히 전쟁과 빈곤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어린이들의 지원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사랑으로 품어지는 환경에서 자라고, 미래를 짊어질 존재로서 보호받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 14. 사회적 불평등과 청소년의 빈곤

일본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젊은이들은 사회구조에 의해서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나뉘는 현실을 보고, 개인의 노력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빈곤에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볼 수 있는 절대적 빈곤이 있는 한편, 일본과 같은 상대적 빈곤이 있습니다. 일본은 약 6명 중 1명 정도의 어린이가 상대적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어린이식당의 종사자에 따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일부 어린이들은 처음에는 ‘왜, 나만?’라고 묻지만, 결국엔 ‘어짜피 내가 노력해봤자’라고 포기하는 어린이도 있다고 합니다. 빈곤의 연속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전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하고, 불평등의 영향을 받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봅시다.

#### 15. 중독자를 위한 지원

교종 프란치스코는 알콜, 도박, 포르노, 인터넷 중독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표하며, 가족과 봉사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가톨릭 중독자들을 위한 모임(JCCA)는 교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르크(DARC) 등 회복시설의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에서 AA(알콜 중독자 갱생회, 알콜 중독으로부터 회복을 목표로 하는 금주 프로그램, 익명성과 개인정보 엄수)의 모임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회복은 혼자가 아닌, 지인과 가족이 함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회복과 사회복귀를 향한 희망을 기도합니다.

## 16. 통합 생태를 향한 초대

교종 프란치스코는 『찬미받으소서』에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본보기로 한 ‘통합 생태’(integral ecology)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측면을 배제하지 않고 자연과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 사람과 하느님의 관계를 모두 포함한 총합적 생태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태적인 회심으로부터 환경문제에 임하고, 생활의 모든 활동을 새롭게 바라보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갑니다. 일본 가톨릭 주교단은 2024년, 통합 생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실천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보니시 참 좋았다』를 발표했습니다. 지구라는 ‘함께 살아가는 집’을 관찰하며, 창조의 풍요로움과 환경문제의 다양성을 배웁니다. 희년의 순례는 지구환경을 지키는 순례이기도 합니다.

## 17. 외국인 신자들과 함께 미래 교회 건설하기

이미 많은 본당에서는 외국인 신자들과 함께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든 신자가 본당 공동체에 소속되어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운영하는 시노도스적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이주민은 경제적인 안정이나 좋은 생활환경으로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을 뿐만 아니라, 비록 다른 나라에 살더라도, 그들이 지켜온 뿌리와 종교 문화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토교구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나, 브라질, 페루와 같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온 신자들이 본당을 다양화하고 활성화하며 시노도스적 교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신자들이 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외국인 신자들도 지도자를 양성함으로써, 다양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18. 희망의 별, 성모 마리아

가톨릭 교회는 지금, 시노도스의 정신을 근본으로 모든 이에게 열린 존재로 살아갈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토교구도 AI(인공지능) 시대이기에 더욱더 진실을 전하고, 정의와 평화, 형제적 사랑, 평등과 관용의 정신을 증진함으로써 희망이라는 모습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의 주교 문장에 있는 교토교구의 배는 A(알파)이시며 Ω(오메가)이신 주님의 십자가의 신비 안에서 희망의 별

이신 성모 마리아에게 인도되어, 아버지 하느님을 향해서 세상의 거친 파도를 건너 나아갑니다. 교  
토교구의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희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감사와 신뢰로 하나 된 마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격려해주실 것입니다.  
교토교구의 여러분, 성년의 은총을 받아, 우리들의 선교의 사명에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이와 함께 희  
망의 순례자가 됩시다.

2025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가톨릭 교토교구 주교 ✠바오로 오오즈카 요시나오